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36호 (2014-15) 발행일 : 2014. 04. 1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화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고령자는 전반적인 건강상태 저하와 함께 가족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그만둔 인구집단의 경제상태, 건강, 삶의 만족 수준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직업상실이나 변화, 사회적 및 가족관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노년기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와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강은나  
장기요양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1. 들어가는 글

- 한국 사회는 명예퇴직, 조기퇴직제도의 도입과 함께 평생고용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되고 있음
  - 빨라진 은퇴 시점은 이전 세대에 없었던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의 공백 기간을 만들게 되었음. 즉, 조기은퇴로 소득단절을 보다 일찍 경험하게 되고, 퇴직시기와 연금수령 시기의 불일치로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한 소득이 없는 기간이 발생하게 됨
  - 가장 오래 일했던 혹은 평생직장이라 여겼던 직장에서 조기은퇴 혹은 정년퇴직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여 경제활동과 무관한 삶을 영위하는 인구계층이 있지만, 상당수의 중년층은 은퇴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음

○ 은퇴 전후의 중고령자는 자신의 직업의 상실과 재고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과 결혼 그리고 노부모 부양 등 가족부양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본고에서는 근로중년층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근로형태의 변화에 따른 삶의 만족변화에 대해 탐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은퇴전환기에 있는 중년층에 대한 지원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은퇴전환기는 생애 주직장에서 은퇴하는 시점부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시점으로 보고자 함.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평균 정년 퇴직연령은 약 54.1세로 남성은 54.4세, 여성은 53.8세로 나타났으며<sup>1)</sup>,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은 71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즉, 50대 초중반에 생애 주직장에서 은퇴하여 70세 전후까지 어떤 형태로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8년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만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고령자 1,474명을 대상으로 2008년과 2012년도의 경제 및 건강상태, 그리고 삶의 만족변화를 분석하였음

## 2.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근로 중고령자의 연령대별 다양성과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음

〈표 1〉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008년)

(단위: %)

구분		연령			전체
		50~54세	55~59세	60~64세	
성별	남성	52.1	52.8	51.9	51.9
	여성	47.9	47.2	49.3	48.1
교육수준	초졸 이하	22.8	41.2	52.1	37.1
	중졸	26.2	24.1	20.0	23.7
	고졸	38.6	23.7	21.1	28.8
	전문대졸 이상	12.4	10.9	6.8	10.3
결혼상태	기혼	83.6	85.7	82.9	84.1
	사별	4.5	7.3	11.3	7.3
	이혼·별거	10.5	5.8	5.4	7.5
	미혼	1.4	1.3	0.5	1.1
가구원수	1명	3.8	5.3	9.4	5.9
	2명	19.1	33.5	49.5	32.5
	3명	32.3	30.1	26.1	29.8
	4명	33.1	21.2	10.3	22.7
	5명 이상	11.7	9.8	4.7	9.1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데이터

1) 방하남 외(2008). 한국의 정년현황실태와 정년연장을 위한 여건조성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60~64세 인구집단의 초졸 이하 비율은 52.1%로 50~54세 인구집단의 초졸 이하 비율(22.8%)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전문대졸 이상 비율은 50~54세 인구집단이 2배 정도 높음

○ 고연령대 집단일수록 사별 비율이 높으며, 저연령대 집단의 이혼 및 별거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60~64세 근로집단 10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으며, 2인 가구도 약 50%에 이룸. 50대 근로자 집단의 가구 형태는 3인가구와 4인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고용형태는 자영업과 상용직이 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함.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임금근로 및 고용주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됨

○ 50~54세 인구집단의 상용직 비율은 26.4%이나 60~64세 인구집단은 13.1%로 절반에 불과하며,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고용주 비중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54세 인구집단의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각각 25.5%와 12.4%이지만, 60~64세 인구집단에서는 40.1%와 18.5%로 증가함. 전체 근로중년층(50~64세) 중 자영업자 비중이 약 30%에 이르는 것은 60~64세 인구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표 2〉 경제활동참여자의 고용형태별 비중(2008년) (단위: %)

구분	연령대			전체
	50~54세	55~59세	60~64세	
상용직	26.4	21.6	13.1	21.0
임시직	14.7	16.2	13.4	14.8
일용직	14.5	12.6	12.4	13.3
자활 및 공공	0.9	2.4	0.9	1.4
고용주	5.7	2.4	1.4	3.4
자영업자	25.5	29.7	40.1	31.1
무급가족종사자	12.4	15.2	18.5	15.1
총계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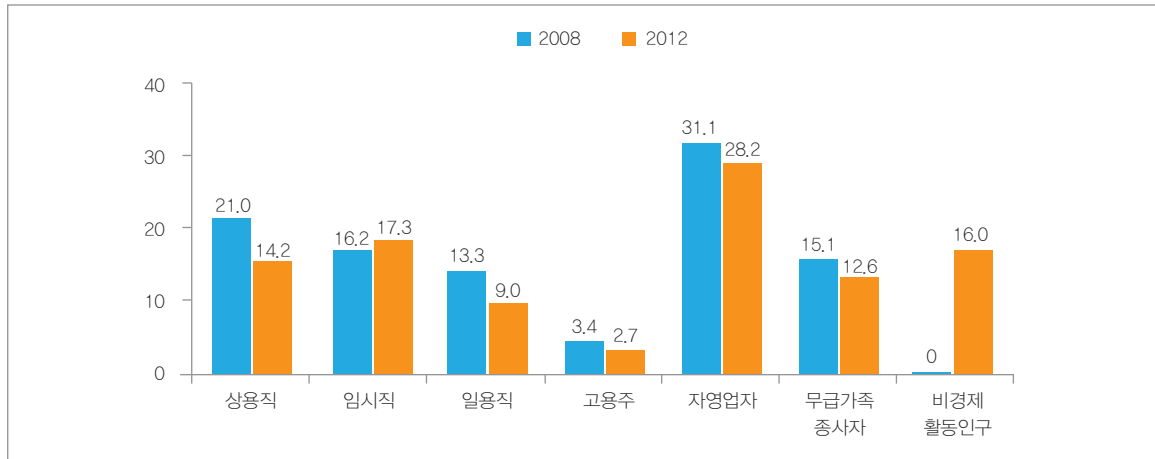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데이터

- 2008년 기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5년 후 경제활동 참여형태를 분석한 결과, 약 16%는 미취업상태(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어 전체적인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함

○ 상용직 비율이 21.0%에서 14.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임시직은 16.2%에서 17.3%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1]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고용형태 변화: 2008년과 2012년 비교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 및 8차년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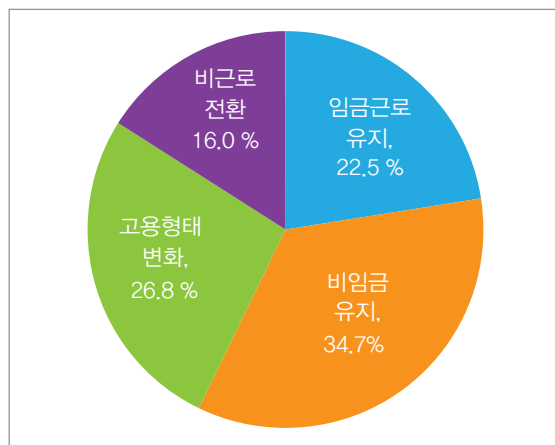
■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약 57%는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43% 정도는 종사상의 지위가 변경된 이직이나 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 변화유형은 임금근로유지형(22.5%), 비임금근로유지형(34.7%), 고용형태변화형(26.8%), 그리고 비근로전환형(16.0%)으로 단순화하여 분류 가능함

○ 임금근로유지형이나 비임금근로유지형은 2008년과 2012년의 종사상 지위가 동일한 집단을 말하며(예를 들면, 상용직 근로자가 상용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무급가족종사자가 무급가족종사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고용형태변화형은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이동하거나 자영업자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하는 등의 고용형태가 변화된 모든 경우를 포함함

○ 고용형태 변화유형 중 비근로전환형의 평균연령이 57.3세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근로유지형은 55.2세로 가장 낮음. 즉, 근로활동을 그만둔 원인 중의 하나가 연령과도 관련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그림 2] 근로 중고령자의 고용형태 변화: 2008년과 2012년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및 8차년도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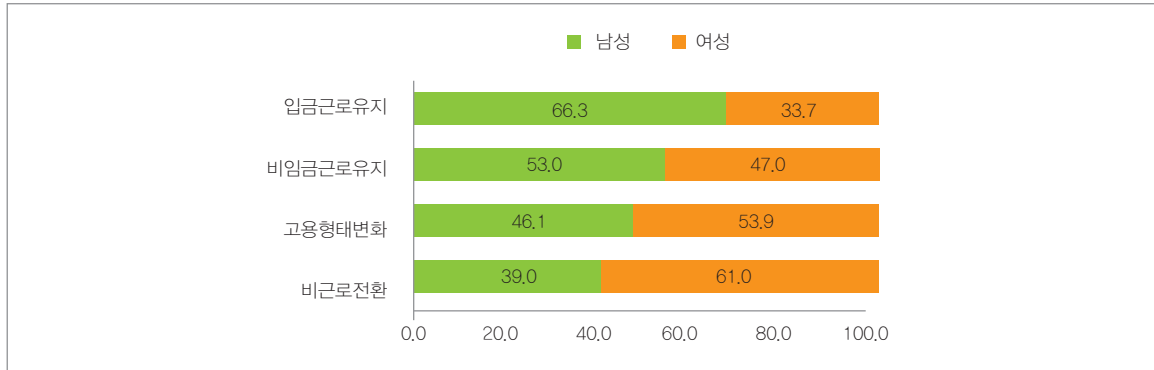
<표 3>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평균연령

구분	평균연령
임금근로유지형	55.2세
비임금근로유지형	57.1세
고용형태변화형	56.1세
비근로전환형	57.3세

주: 2008년 기준 연령

-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유형은 임금근로유지형과 비임금근로유지형은 남성 비율이 높고, 고용형태 변화형과 비근로전환형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유형 (단위: %)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 및 8차년도 데이터

### 3.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특성 및 삶의 만족 변화

#### 가. 경제적 특성 변화

- 근로 중고령자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8년보다 2012년의 소득과 지출 모두 증가 하였으나, 소득보다 지출의 증가폭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2008년 338만원과 314만원에서 2012년 376만원과 34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생활비 총 지출액은 2008년 284만원에서 2012년 330만원으로 증가함

<표 4> 중고령자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변화 (단위: 만원)

구분	2008년	2012년
경상소득	337.9	375.5
가처분소득	313.8	348.9
생활비 지출	283.8	329.5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 및 8차년도 데이터

- 고용형태 변화유형에 따른 월평균 소득과 지출변화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유지형의 월평균소득과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 그러나 비근로전환형은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반면 생활비 지출액은 증가하여 생활비 지출이 가처분소득을 상회함

○ 임금근로유지형, 비임금근로유지형, 그리고 고용형태변화형 2008년과 2012년의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생활비 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며, 고용형태변화형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음

○ 비근로전환형은 2008년도 소득에 비해 2012년 소득이 감소한 반면, 생활비 지출은 262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증가하여 소득과 지출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근로 중고령자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변화

(단위: 만원)

구분		2008년	2012년
경상소득	임금근로유지	407.3	490.8
	비임금근로유지	304.5	345.3
	고용형태변화	330.6	370.0
	비근로전환	324.7	287.8
가처분소득	임금근로유지	370.2	446.2
	비임금근로유지	286.4	324.2
	고용형태변화	308.3	346.4
	비근로전환	302.8	269.7
생활비 지출	임금근로유지	337.5	411.8
	비임금근로유지	255.6	302.3
	고용형태변화	288.1	322.6
	비근로전환	262.0	284.3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 및 8차년도 데이터

### 나. 건강 특성 변화

- 은퇴전환기에 있는 인구집단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변화를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증상으로 분석하였으며,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낮아졌으나 정신건강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비근로전환형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음. 반면,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은 우울증을 의심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비근로전환형은 우울의심수준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주관적 건강수준

구분	2008년	2012년
전체	3.43	3.35
임금근로유지	3.62	3.56
비임금근로유지	3.32	3.26
고용형태변화	3.45	3.42
비근로전환	3.38	3.09

주: 주관적 건강수준 5점 리커트 척도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 및 8차년도 데이터

〈표 7〉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우울증상

구분	2008년	2012년
전체	14.7	13.5
임금근로유지	14.3	12.6
비임금근로유지	14.5	13.7
고용형태변화	15.6	13.4
비근로전환	16.0	14.4

주: 우울증상이 16점 이상이면 우울증 의심수준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 및 7차년도 데이터

다. 삶의 만족 변화

- 배우자 및 자녀관계 만족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가족과의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변화는 노년기 진입 이후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배우자와의 관계 및 자녀관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비근로전환형의 배우자 및 자녀관계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배우자 관계 만족

구분	배우자 관계 만족	
	2008년	2012년
전체	5.25	5.21
임금근로유지	5.42	5.34
비임금근로유지	5.21	5.22
고용형태변화	5.23	5.10
비근로전환	5.17	5.18

주: 7점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 및 7차년도 데이터

〈표 9〉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자녀관계 만족

구분	자녀관계 만족	
	2008년	2012년
전체	5.71	5.58
임금근로유지	5.74	5.63
비임금근로유지	5.71	5.64
고용형태변화	5.72	5.53
비근로전환	5.67	5.49

주: 7점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 및 7차년도 데이터

- 근로 중고령자의 사회적 친분 및 여가생활 만족도는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비근로전환형의 사회적 친분관계만족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으며, 여가생활에서는 고용형태변화형과 비근로전환형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구분	2008년	2012년
전체	3.69	3.81
임금근로유지	3.75	3.83
비임금근로유지	3.76	3.87
고용형태변화	3.63	3.80
비근로전환	3.57	3.68

주: 5점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 및 8차년도 데이터

〈표 11〉 고용형태 변화유형별 여가생활 만족

구분	2008년	2012년
전체	2.89	3.18
임금근로유지	3.02	3.24
비임금근로유지	2.92	3.18
고용형태변화	2.80	3.14
비근로전환	2.82	3.15

주: 5점 기준  
자료: 한국복지패널 4차년 및 8차년도 데이터

## 4. 시사점

- 직업 상실과 사회적 및 가족관계 변화의 전환기에 있는 근로중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은퇴전환기에 겪는 경제적 및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1차적 사회관계망이자 지지체계인 가족 구성원과 부정적인 관계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
  - 직장생활로 인해 제한되어 왔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중년층이 보다 쉽게 여가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노년기 진입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인구집단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요구됨
  - 기존의 직업알선이나 직업교육훈련 등과 같은 재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퇴직과 구직과정에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인 스트레스나 가족관계 변화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중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노년기 진입을 앞둔 중년층에 대한 노후준비 혹은 노후설계지원의 실질적인 확대 요구
  - 최근 중년기 인구집단의 과제 중의 하나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대비로서 경제적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대인관계,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균형잡힌 노후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 생애주직장에서의 퇴직과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실로부터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설계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중년기 이전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